

CDP Best Practice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라

기후 리더십 블랙박스

February 2023

Contents

01	신한금융그룹
04	삼성바이오로직스
06	효성중공업
08	KB금융그룹
10	SK이노베이션
12	기아
13	IBK기업은행
14	하나금융그룹
15	현대건설
16	현대위아
17	현대자동차
18	KT
19	SK주식회사
20	SK텔레콤
21	현대글로벌비스
22	SK하이닉스
24	About CDP

Important Notice

본 보고서 내의 자료는 CDP Worldwide(CDP)에 통보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 내의 CDP 또는 공저자의 자료를 이용한 재편집 또는 재판매 권한을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본 보고서상의 자료를 재편집 또는 재판매 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CD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2022 CDP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KoSIF, EY한영 또는 CDP는 보고서상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대변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KoSIF, EY한영 및 CDP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떠한 주의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고서내의 모든 정보와 전망은 리포트 작성 시점의 KoSIF, EY한영 및/또는 CDP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경제, 정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외부원고는 해당저자 및 기관의 개별적 의견이며, CD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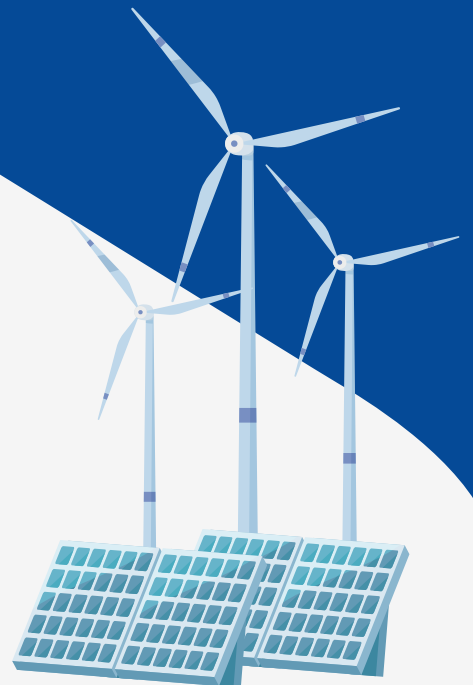
KoSIF, EY한영, CDP, 협력기관, 제휴 회사 및 해당기관의 주주, 구성원, 파트너, 임직원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에 언급된 기업의 주식은 일부 주 또는 국가에서 구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수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P’ 및 ‘CDP Worldwide’는 자선단체(no. 1122330)와 보증책임회사(no. 05013650)로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CDP Worldwide를 지칭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CDP의 로컬 파트너로서 CDP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처를 맡고 있으며, EY한영은 CDP한국위원회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신한은 금융으로 탄소중립 대전환을 준비합니다.

‘Zero Carbon Drive’ 전략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대표이사 회장, 신한금융지주



신한은 금융으로 탄소중립 대전환을 준비합니다. 'Zero Carbon Drive' 전략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조용병입니다.

최근 몇 년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와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역시 불안한 국제 정세와 경기 침체,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의 커지는 모습은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며 기후변화가 기업 ESG경영 전반에 있어 '새로운 표준', New Normal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실행력을 키워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밝고 따뜻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2022년은 신한은행 창업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창업의 기틀이 되었던 '금융보국'의 다짐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미션으로 이어져 임직원 모두의 마음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 해 신한은 국내 금융그룹으로 최초 'CDP Climate Change' 부문 명예의 전당 플래티넘 클럽에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그룹의 미션을 실천으로 옮긴 발자취가 가져다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님과 Paul Simpson CDP CEO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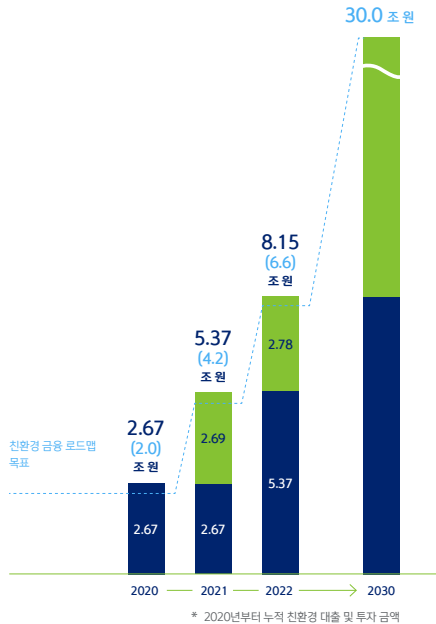
매년 신한금융그룹은 한국 CDP 보고서 발간을 후원해오면서 그 성장 속도가 놀라움을 느낍니다. CDP 한국위원회의 지속적인 리포트 발간 노력이 국내 기후변화 사향을 전파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정보 공개는 기후행동을 위한 그 바탕이 되며,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핵심사항입니다. 올 해 국내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참여한 CDP가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후변화를 향한 여정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멋진 세상을 향한 여정이 고될수록 함께 나눌 감동은 클 것입니다. 신한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실행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나누는 '신한 영향력 1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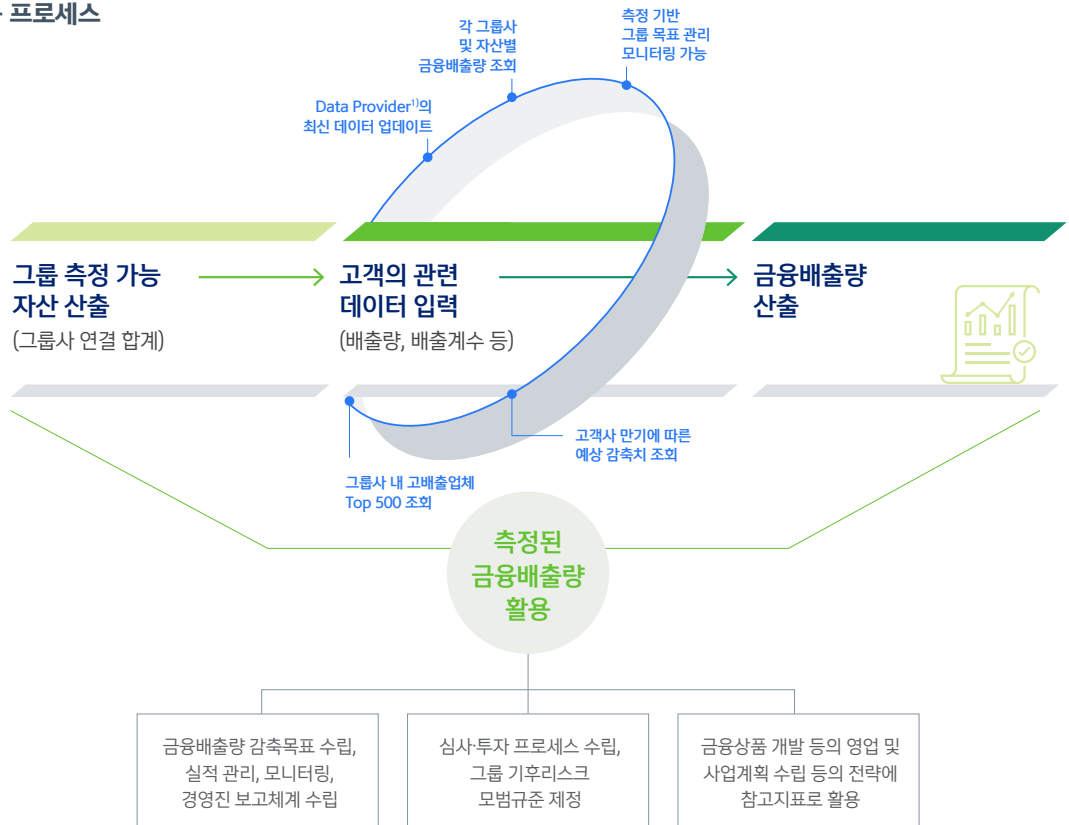
친환경 금융 실적*



신한금융그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배출량의 측정·분석은 물론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부문에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2022년 신한이 국내 금융사 최초로 개발한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은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온실가스 회계기준에 따라 그룹의 금융자산을 6개 자산군으로 구분하여 금융배출량을 정교하게 산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248.6조 원의 금융자산에 대한 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측정자산의 범위를 꾸준히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신한 ESG 역량 강화와 실행력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신한은 금융으로 탄소중립 대전환을 준비합니다. ‘Zero Carbon Drive’ 전략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솔루션, 청정에너지, 친환경 기술 등 기후 분야에 투자하는 ‘기후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신한자산운용이 조성하고 신한금융그룹이 투자한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1호’에 500억 원을 운용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하는 기술인 ‘C-테크’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에 투자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파트너십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동 프로세스



¹⁾ 신용평가사, 환경부 등 공식되는 업체별 탄소배출량 최신 자료 업데이트

Driven. For a Sustainable Life.

더 건강한 삶, 더 건강한 지구를 향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으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고,
적극적인 친환경 경영으로 더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으로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한다’는 미션 아래, 더 건강한 삶, 더 건강한 지구를 향한 움직임에 함께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Sustainable CDMO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현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며, 그중 50% 이상은 헬스케어 공급망 분야에서 발생하는 만큼 온실가스의 직접 배출량 감소와 함께 공급망 전반에 걸친 넷제로^{Net Zero} 달성이 필요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지속가능시장 이니셔티브^{SMI: 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에 참여, 공급망 분야 의장을 맡아 국제기구 및 글로벌 바이오/제약사들과 함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50년까지 사업장 및 공급망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RE100에 가입했으며, CDP 참여, TCFD 보고서 발간, 협력사 ESG 파트너십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1월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테라 카르타 실^{Terra Carta Seal}’을 수상했으며,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2년 연속 편입, 에코바디스^{EcoVadis} 골드 등급 획득 등 대외 ESG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 제약업계, 민간 업체, 정부 기관 등과 포괄적으로 연대해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대한 혁신과 도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30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

효성중공업은 저탄소 그린라이프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경영 방향에 따라, ‘그린·나눔·윤리·상생’의 4대 경영전략 아래 ‘2030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 구현’을 VISION 으로 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은 저탄소 그린 라이프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경영 방향에 따라, ‘그린·나눔·윤리·상생’의 4대 경영전략 아래 ‘2030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 구현’을 VISION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ESG경영 활동 가운데, 각 C-Level 임원이 참여하는 ‘ESG경영추진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 순환경제 등의 환경부문과 공급망·안전 등의 사회부문에 있어 각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보고관리체계 및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중전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 SF6가스를 대체하는 친환경 가스절연개폐기^{GIS}, 에너지저장장치^{ESS}, 스택콤^{STACOM},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의 친환경 제품과 솔루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수소경제 사회 구현을 위해 액화수소 플랜트와 전국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등을 적극 육성하며,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의 ESG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급망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과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Scope3 배출량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한국 수자원공단과 함께 한국 해양생태계법에 보호식물로 지정된 잘피숲^{거머리말} 서식지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앞으로도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이어 나가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 목표의 조기 달성’,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 및 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넷제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ESG리더십’을 그룹 경영전략의 한 축으로 선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ESG 경영의 이행과 확산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를 금융사 최초로 신설하고, 실질적인 ESG경영을 통해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내부 배출량과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의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인 ‘KB Net Zero S.T.A.R.’는 아시아 지역 금융회사 및 국내 기업 최초로 SBTi^{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KB Green Wave 2030’은,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을 50조원으로 확대하는 그룹의 중장기 전략으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환경이라는 더 큰 미래 가치를 쫓는 KB금융그룹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KB금융그룹은 ESG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행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금융사의 넷제로 전환을 위해 구성된 글로벌 은행간 리더십 그룹인 NZBA^{넷제로은행연합} 아시아-태평양 대표은행으로 선정되어, 글로벌 금융회사의 탄소중립 확산 이행계획 수립 및 글로벌 정책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FANZ^{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기관 참여 유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식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금융권 최초 ‘탈석탄 금융’ 선언, 2040년까지 그룹의 모든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인 ‘RE100^{Renewable Energy 100}’ 가입 및 친환경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대출 및 투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No.1 금융그룹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온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All Time Net Zero

SK이노베이션은 Scope 1, 2, 3 감축 및
Global 탄소 감축 기여를 통해
2050년 Net Zero를 넘어
2062년 직접 탄소배출량을
4.8억톤 규모로 감축하겠다는
All Time Net Zero를 선언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기후변화를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Net Zero 달성을 기업의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Net Zero 달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자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50년 에너지·화학사업 Scope 1, 2 Net Zero, 2035년 배터리·소재사업 Scope 1, 2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Net Zero Operations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감축옵션 발굴을 통해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제로화하여 실질적 감축 성과를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Scope 1, 2 Net Zero 목표 달성 진척도를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Net Zero Operations를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50년까지의 SK이노베이션 계열통합, 그리고 에너지/화학 사업에 대한 Scope 3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Carbon to Green 전략을 통해 Biz Model 및 Portfolio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집약도가 높았던 기존 에너지/화학사업에서 친환경/저탄소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단계의 Scope 3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배터리/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Green 자산을 확장하여, Financial Intensity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탄소집약도를 2050년까지 현재 대비 90% 이상 감축시킬 계획입니다. Scope 3 감축은 분명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Global Net Zero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Net Zero 달성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강해진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대내외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Scope 3 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2021년 11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ustainable Mobility Solutions Provider)라는 기업 비전과 함께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Sustainable Energy, 제품과 서비스에서 친환경을 추구하는 Sustainable Mobility, 지구 환경을 위한 Sustainable Planet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기아의 전동화 전략은 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사용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량 최소화 전략이자, 나아가 탄소중립을 향한 핵심과제입니다. 기아는 중장기 미래전략 Plan S를 기반으로 2040년 주요 4대 시장 전동화 100%, 2045년에는 글로벌 전동화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EV Tier 1 브랜드로 도약함과 동시에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기아는 2022년 4월 RE100 가입을 완료하고, 해외 사업장은 2030년, 국내 사업장 2040년을 목표로 전 세계 사업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력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화 및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구매로 구성된 RE100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기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아



IBK기업은행은 금융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체계적인 ESG경영추진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최초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립하여 기후변화 및 ESG 관련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04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표준인 환경경영·에너지경영 (ISO14001·15001)을 동시 취득하였으며, 공공차량에 대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말 기준 전체 공공차량 중 약 52%를 전기차로 전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SBTi),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2050년까지 금융자산의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2년 적도원칙을 반영한 「환경·사회 위험관리업무 취급지침」을 제정하였고, 석탄발전 관련 신규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 경영원칙」을 수립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체계에 ESG요소를 반영하며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확한 임무를 가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녹색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화 된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및 녹색기업 및 녹색전환 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ESG·녹색전환에 대한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SLL(Sustainable Linked Loan)구조를 반영한 특화상품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출시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녹색전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글로벌 그린뱅크로 나아갈 것입니다.

IBK기업은행



하나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을 모티브로 한 'Big Step for Tomorrow'라는 ESG 비전하에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2018년부터 진행하여 올해 말 100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 파워 온' 프로그램을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그룹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SBTi(과학기반 탄소감축목표 이니셔티브)기준에 따라 그룹의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장 및 자산포트폴리오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이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증권은 업계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 및 ESG평가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하나은행은 Negative 방식의 Screening을 통해 고탄소 배출 산업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나금융그룹은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글로벌 기준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확대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그룹





현대건설은 기후 위기가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중대하게 인식하여 2010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2012년 국내 건설사 최초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현장에 도입했으며, 2021년 탈(脫)석탄 선언을 공표하며 건설업의 친환경 분야를 선도해 왔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Global Green One Pioneer'라는 환경 비전 아래 신재생에너지, 수소 비즈니스, 제로에너지빌딩, CCUS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축적된 EPC 기술 역량을 토대로 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건설 전 분야를 아우르는 'Total Solution Creator'로 저탄소 건설 분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저탄소 건설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대건설



現代



현대위아는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하며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먼저 친환경 자동차 부품사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을 개발하며 친환경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이며,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가능한 전동화 액슬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사업장 내의 탄소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장의 에너지와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가 가동되는 일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주요 생산제품인 등속조인트의 환경 영향 정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생기는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의 '환경성적표지' 인증도 받았습니다.

현대위아는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지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량 보다 약 20% 저감했습니다.

현대위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내외 제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 중입니다. 2018년 전력 수요자원거래시장 제도에 참여했고, 작년에는 글로벌 RE100에 참여해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울러 현대위아는 지역 사업장 인근의 학교에 숲을 꾸미는 '현대위아 초록학교', 하천 정화 활동인 '1사 1하천',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현대위아는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위아



본 페이지는 현대위아에서 제공한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변화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아이오닉 브랜드를 시작으로 선제적인 전동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20여 년간 연구해 온 수소사회 구축 노력 등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7월 RE100 가입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진정성과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뮌헨 'IAA 모빌리티'에서는 전동화와 수소사회 구축을 기반으로 한 2045년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사업에서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등 차량 판매 이후 단계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소사업 역시 수소전기차 라인업 구축뿐 아니라 수소 에너지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저장, 운송 및 활용 단계까지 수소 생태계 전 과정에 걸쳐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그 어느 기업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과 책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KT는 Net Zero2050 달성을 위해 2022년 6월 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습니다.

KT 온실가스 배출량의 97% 이상이 전기 사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용이 Net Zero 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100 이행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차원에서 전국 가용 부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KT는 전국 101개소에 총 8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T는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해 사옥과 IDC, 기지국 및 중계기 등의 전국 19만여개소 KT전체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룹 내 9개 상장 그룹사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KT는 노사공동 ESG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T 임직원들은 다회용 컵 사용을 통해 70여만 개의 일회용컵을 아꼈으며, 165만 개의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고 25억만 보의 걸음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6만 1천여 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한 효과로 기록됩니다.

KT는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하여 Net Zero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KT





SK주식회사는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하며, 국내 업계 최초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 및 Net Zero 2040 선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에는 △SBTi 가입 △ Scope 3 모든 항목 배출량 공시 △ TCFD권고안 이행 강화 등 Net Zero관리체계를 Upgrade해 나가고 있습니다.

ICT 사업을 영위하는 SK주식회사는 전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90% 이상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태양광 자가발전 확충, 고효율 설비 도입 등 친환경 Infra투자 및 재생에너지 전력구매를 통해 RE100로드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전문회사로서는 '21년 Green투자센터 신설 이래, 대체에너지, 환경기술, 지속가능식품, 탄소처리기술 등 Net-Zero 달성에 필요한 핵심영역 투자를 강화하고, '23년까지 친환경투자지분가치 35조원 이상 달성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SK는 그룹차원에서 2030년 전세계 탄소감축목표량 1% 감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SK주식회사는 넷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IT 및 투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SK주식회사





SK텔레콤은 ICT 기반 ESG 대표기업을 목표로, 전사적 차원에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회 내 ESG위원회 신설, 2022년 ESG 2.0 선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2020년 국내 최초 RE100 가입, 2021년 '2050 Net Zero' 선언, 2022년 SBTi 감축 목표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녹색 프리미엄 계약물량 확대 및 통신 국사 태양광 설치로 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 중이며, Single RAN(3G/LTE 장비 통합운영) 기술을 개발하여 2021년부터 연 1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이를 통신업계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추진한 미얀마 쿡스토브 CDM 사업을 통해 UNFCCC로부터 탄소배출권 (CER)을 확보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Green Culture 조성과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도 적극 진행중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절감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Vision AI 기술이 적용된 다회용 컵 사용 프로젝트인 '해피해빗'을 확산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전국 통신장비의 손실위험을 예측 관리 중이며, 경영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Scope 3 배출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K텔레콤의 활동은 CDP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ICT 기술 기반 친환경 경영활동을 강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SK텔레콤

IR Presentation

Come and join us to get to know about your interest companies
Also, there will be prizes at the end of each show

Date & Time	Presenting Company
14:00 ~ 14:10	10' SCHOIS
14:15 ~ 14:25	10' WIZDLE
14:30 ~ 14:40	10' ONHA Tech
14:45 ~ 14:55	10' Book
14:55 ~ 15:05	10' Namib
15:05 ~ 15:15	10' ED-entz
15:20 ~ 15:35	10' Barrier Free AI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친환경 물류 선도기업을 목표로 신기후체제 및 대내외 환경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차량, 선박, 물류센터 등 SCM 전반에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EV 등 친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친환경 신사업 브랜드 'ECOH'(환경을 의미하는 ECO와 사람을 뜻하는 HUMAN의 합성어)를 론칭하였으며, 정부 부처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공급 등 전 영역에서 수소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 선언을 하였으며, 환경부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적재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저감하는 '사용후 배터리 운송 설비'를 활용하고 화물차량 에코드라이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박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저마찰/연료 절감형 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유통 분야 Leading Company로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실천하며, 저탄소 경영에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는 기후변화가 지구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온실가스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기후변화 리스크를 분석하여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률도 2030년까지 33% 이상 달성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반도체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수자원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수량 집약도를 낮추고 수자원 절감을 위해 노력할뿐아니라, 방류수 수질을 관리해 사업장 주변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친환경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를 정착시켜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SAMSUNG
BIOLOGICS

 **SK** innovation

 KB 금융그룹



 IBK 기업은행

 **SK** telecom

kt

 **SK** hynix

 현대건설

 하나금융그룹

 **HYUNDAI**

HYOSUNG
HEAVY INDUSTRIES

 **SK** Inc.

HYUNDAI
GLOVIS

HYUNDAI
WIA

About CDP

국내 CDP 서명 금융기관¹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기업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스톤브릿지캐피탈
키움투자자산운용

CDP, 투자자 기반 전 세계 최대 환경정보공개 요청 프레임워크

CDP는 전 세계 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국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기후변화, 물 경영, 산림) 대응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프로젝트이다. 2023년 현재 전 세계 700개 이상의 금융기관(운용자산 130조 (US달러))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총 20개 금융기관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CDP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위임을 받아 협력사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Supply Chain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286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기업 가운데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이다. 2009년부터 참여한 삼성전자는 2022년에 400개 이상 협력사에 매년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참여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18,730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자에, 16,000개 이상의 기업이 고객사에 CDP를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CDP,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보공개 요청 기업 선정

CDP는 매년 일정한 타임라인으로 운영된다. 정보공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CEO와 작성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다. 정보공개요청의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은 CDP한국위원회가 시가총액,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CDP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평가방법론을 공개하고 기업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여 전 세계 기업의 점수를 공개한다. CDP 공시 평가를 받으려는 기업은 CDP가 공시한 응답 마감일까지 CDP 온라인응답시스템(ORS)을 통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글로벌 평가 점수는 연말 CDP공식 홈페이지(www.cdp.net)에 공개된다.

CDP 응답, TCFD에서 권고하는 공개내용 대응 뿐만 아니라 RE100, SBTi 등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보고 이용

CDP는 당해 주요 환경관련 동향을 반영하여 매년 질의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방법론을 업데이트하고 공개한다. 2018년부터 TCFD에서 권고하는 주요 환경정보 공개 내용을 포함하여 CDP응답을 통해 TCFD대응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CDP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족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 SBTi 등의 운영 기관 중 하나로 기업은 CDP를 통해 참여 이니셔티브의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1. 그룹,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순에서 가나다 순으로

2023 CDP 주요 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1월	2월	3월	4월	4월-6월	7월	12월 (안)	1월 (안)
서명기관 모집	정보공개 요청서 발송 (CEO, 담당자)	Scope 3 교육	온라인 응답시스템 (ORS) 오픈	기후변화 및 물 경영 작성안내법 및 평가방법론 교육	응답 마감	글로벌 평가점수 공개	CDP Korea 보고서 발간 및 시상식

CDP Contacts

Paul Dickinson
Founder Chair, CDP

Donald Chan
Managing Director,
Asia Pacific

CDP
4th Floor,
60 Great Tower Street,
London EC3R 5AD
United Kingdom
Tel: +44 (0)20 3818 3900
www.cdp.net
info@cdp.net

CDP 한국위원회 Contacts (사무국: KoSIF)

장지인
위원장

양춘승
상임부위원장

이종오
사무국장

김태한
수석연구원

김정석
책임연구원

신버리
책임연구원

이다연
책임연구원

김현정
선임연구원

정유민
선임연구원

김민아
연구원

서승연
연구원

유진호
연구원

KoSIF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70 8821 2289

EY한영 Contacts (CDP 한국위원회 파트너)

박경상
파트너

EY한영
서울특별시 영등포시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4-8F
Tel: +82 (0)2 3787 6600
www.ey.com
sangheon.jang@kr.ey.com

CDP 한국자문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CDP Climate Change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이병욱
전 세종대학교 교수
전 환경부 차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

CDP Water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이길재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CDP 실무위원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박재홍
EY 한영 파트너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